

## 충남 전시예술의 발전 방안

박종교 | 한남대학교 교수, 한국미협 대전시지회장



예술 활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등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20세기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작된 21세기는 정보화를 중심으로 인간의 문화 예술 활동이 정신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가치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 활동은 사회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그 사회의 가치나 목적에 따라 발전도, 쇠퇴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와 예술은 함께 공존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문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화예술이 주는 가치와 더불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정신적 풍요로움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경제나 문화, 교육 등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예술인의 노력과 아울러 官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전시예술의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전시예술이란?

전시예술의 핵심적인 요소는 작가, 작품, 전시장, 관객 등에 의하여 이뤄지며 전시를 통해 인간의 감각에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총체적인 예술을 지칭한다. 이는 시각을 매개로 전달하고자 하는 회화, 조각, 서예, 디자인, 공예,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등을 포함하는 예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기획은 때에 따라, 작품의 성질에 따라 보편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획자는 치밀한 계획을 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작품에 대한 애정이다.

### 전시예술 현황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 신 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 붐을 타고 대학 신설 및 이전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작가군과 매년 늘어나는 예비 작가 등 수많은 인적 자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공간과 지역 전시예술의 지원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하며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풍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15~16세기 지역색이 독특한 철화분청사기 생산지인 계룡산자락에 작가 등 공동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각각의 개인공방을 설치하고 도예계에 새롭고 신선한 방향을 제시하며 형성된 계룡산도예촌은 자연적 집성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1995년 공주시로부터 농·어촌 특산단지 자금을 지원받아 종합전시장과 전통 가마를 지으면서 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열악한 사정으로 인한 부조화스런 건축물과 전무한 조경은 방문객으로부터 아쉬움을 남게 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넘겨지 못한 부지평수는 도예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래식 전통가마를 지을 수 없어 가마 소성의 한계를 극복치 못하고 있어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예축제와 계룡산분청사기작가전, 해외교류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 등 작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인별 영역을 넓히며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 결과 철화분청사기에 대한 호감도는 급증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나 작품의 질·양적

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경기 이천의 세계도예축제나 전남 강진의 청자축제는 그 규모나 기반이 세계적인데 비하여 계룡산 도예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광주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등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적 성장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비하여 공주자연비엔날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러한 행사의 추진은 추상적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충남의 전시예술이 그간의 냉정한 성과 분석을 통해 새롭게 전진해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 발전 방안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문화정책과 비전을 위해서는 공인된 예술단체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官 또한 행정 마인드를 개선하고, 문화 시설의 확보와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행정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역 전시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미술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은 일시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지역미술계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이 자국의 작가를 키워 세계미술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은 국가 경쟁력을 문화에 투자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문화를 연구하고 계발하여 지역작가를 키워 내는 일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문화경쟁력 시대라고 한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산업의 구조가 문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침체된 경제의 현실 속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의 국제교류 및 전시를 통하여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 속의 문화도시, 충남”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